

 POSRI 보고서

약세 엔화에 ‘TPP 날개’ 다는 일본

사동철 수석연구원, 글로벌경제·정보센터 (dsa@posri.re.kr)

[목 차]

1. 일본의 TPP 협상참가
2. 협상참가 배경
3. 경제적 효과
4. 전략과 향후 일정
5.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월 15일 아태 지역의 무역규범 제정 주도와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권 구축을 강조하며 TPP 협상 참가를 공식 표명
 - 일본의 TPP 참여로 TPP는 전세계 GDP의 3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경제권이 됨
- 일본이 TPP 협상 참가를 전격 선언한 배경에는 4가지 요인이 주로 작용함
 - 아베 총리는 자민당 지지 세력인 농업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의 장기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TPP 협상 참가를 본격 추진
 - 2월 美日 정상회담에서 상호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베 총리가 전격 참여 선언을 하게 된 주 요인
 - FTA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한국을 견제하려는 목적과 TPP 불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우려한 것도 일본이 협상에 전격 참가하게 된 배경임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 부족이 심각한 일본이 미국산 셰일가스의 수출 승인을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TPP 협상 참가를 결정했다는 평가도 있음
- TPP 참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완전 관세철폐를 가정할 경우 실질 GDP가 3.2조 엔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됨(일본 정부의 試算 결과)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일본이 TPP 참가로 인해 2025년에 GDP가 2% 증가하고 수출은 11.2% 증가할 것으로 전망
- 11개 TPP 협상 참가국들이 일본의 TPP 협상 참가를 승인함으로써 일본은 빠르면 7월말에 본격적으로 협상에 참가할 것으로 전망됨
 - 11개 TPP 협상참가국이 일본의 참가를 승인하였으나, 미 의회의 신규 참가국에 대한 심의만 남아있으며 최소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일본의 TPP 협상참가로 우리나라도 국익과 함께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TPP 참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 미국이 주도하는 TPP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중간단계로, 21세기 경제질서와 글로벌 통상패러다임의 game changer가 될 가능성도 있어 이에 대한 대비 필요
 - 일본의 TPP 가입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나라가 참가하지 않을 경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됨
 - 일본은 현재 TPP를 동남아 진출 활성화 전략 차원에서 중시하고 있고, 일본의 TPP 가입은 새로운 교역체계의 '룰 메이킹'을 선도할 가능성도 있음
- 향후 우리나라는 일본의 TPP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TPP 협상 참가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미국,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다수 TPP 협상참가국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한 국가라는 점에서 투자정책, 정부조달, 기술장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1. 일본의 TPP 협상참가 선언과 의미

□ 일본은 아태지역에서의 무역규범 제정 주도와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권 구축을 강조하며 TPP 협상 참가를 공식 표명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3월 15일 기자회견에서 “세계경제의 개방화 확산 추세에서 TPP는 일본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며 TPP 참가를 선언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rans-Pacific Partnership): '05년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으로 시작하였고, 기존 아태 지역 11개국(미국, 캐나다, 멕시코,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에 일본 참가로 회원국이 12개국이 되었으며 100% 관세철폐를 목표로 하는 多者間 자유무역협정(FTA)

○ 아베 총리는 일본의 TPP 협상 참가가 미국과의 새로운 경제권을 구축하고 아태 지역의 무역규범 제정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
- 일본의 TPP 참가로 큰 타격을 받게 될 농업분야에서의 대책을 마련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 임도 강조

□ 일본의 협상 참가로 TPP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로 출범하게 되며 TPP의 경제적 위상이 커질 전망

※ 11개 기존 TPP 협상참가국은 4월 20일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TPP 협상 참가국 장관급 회의에서 일본의 참가를 최종 승인

○ 일본의 참가로 협상참가국이 12개국이 된 TPP는 전 세계 GDP의 38%, 전 세계 무역량의 28%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지대가 될 전망
- 미국과 일본이 차지하는 GDP 비중은 TPP 협상참가국 중 90% 이상으로 TPP는 사실상 美日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평가 받고 있음

□ 일본의 TPP 협상참가 선언은 일본 정부의 광역 FTA 정책의 무게중심을 TPP로 이동시키고 있음을 의미

○ TPP 협상과정에서 미국과 함께 새로운 교역질서의 ‘룰 메이킹’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플레이어가 되는 것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짐
- 일본은 한중일 FTA 또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서 중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데다 조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미국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 참가

2. 일본의 TPP 협상 참가 배경

□ 아베 총리는 일본 농업단체 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의 일환으로 TPP 협상 참가를 본격 추진

- 아베 총리는 美日 동맹 강화와 함께 아베노믹스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총리 취임 이후 TPP 협상 참가를 본격 추진
 - 일본의 TPP 협상참가는 일본 경제 부활을 위한 아베노믹스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로, 글로벌 시장 확대를 통한 장기 성장전략의 일환임
 - 그러나 자민당 지지 세력인 농업단체의 강한 반발을 의식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TPP에 반대하는 의견 존재
 - 오는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농업 유권자들의 표를 의식해 자민당 내 'TPP 참가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모임' 소속의원들이 반대 표명
 - 아베 총리는 2월 2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조속한 시기에 결단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국민적 지지 확보 당위성을 언급하며 3월 15일에 협상 참가를 전격 발표
 - 아베 총리가 7월 참의원 선거에서 TPP가 핵심 쟁점화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협상 참가를 조기에 결정해 정치적 도박이라는 평가도 있음
 - 자민당 내 TPP 참가 대책위원회는 향후 협상 과정을 주시하며, 쌀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 TPP 협상에서 탈퇴도 불가피하다는 조건부로 TPP 협상 참여를 용인
- 美日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상호 민감 품목에 대한 관세는 예외적으로 정하기로 합의하면서 일본이 TPP 협상 참가 명분을 확보
- 회담 이전까지 관세철폐 대상품목의 범위에 대해 양국간 주장이 엇갈렸고 일본이 참가에 난색을 표시
 - 아베 총리는 작년 중의원 선거에서 “모든 품목의 관세 철폐를 전제로 하는 한 TPP에 참가하지 않겠다”고 주장
 - 미국은 일본의 농업분야와 보험시장의 개방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수입 관세(2.5%)에 대해선 고수한다는 입장
 - 그러나 아베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에서, TPP 협상에 참가해도 일방적인 관세 철폐 조치가 강요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고 이를 예외 설정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TPP 협상 참가를 결심
 -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모든 품목이 협상대상이 되지만 양국간 상호 민감 품목의 존재를 인정해 최종적으로는 협상을 통해 범위를 정하기로 합의
-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에는 FTA에 적극적인 한국을 견제하려는 포석과 TPP 불참에 따른 상당한 손실을 우려했기 때문
- 일본은 한국이 미국, EU 등과 잇달아 FTA를 성사시키며 빠르게 경제영토를 확장해가고 있는 것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 TPP를 인식
 - 동아시아에서 FTA 체결을 둘러싼 주도권 경쟁이 점차 가열되는 가운데, 한국이 FTA를 활용해 동아시아 지역 내 자유무역의 허브가 될 가능성을 경계하는 분위기 확산
 - FTA 후진국이라는 위기감에 사로잡힌 일본은 TPP 참가로 얻는 이익보다 TPP 불참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크게 우려

- 일본 경제산업성은 일본이 TPP에 참가하지 않고, EU와 중국과의 FTA도 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이 美, EU, 中과 FTA를 체결했을 경우, 2020년 일본 주력제품(자동차, 전자, 기계)의 경제적 손실을 시산
- 미국, EU, 중국에서의 시장점유율 상실로 인해 연관산업을 포함한 손실액은 수출감소가 8.6조엔, 생산감소는 20.6조 엔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GDP로 환산하면 10.6조 엔이 줄어들고 일자리도 81만여 개가 사라지는 것으로 평가

<일본의 TPP 불참에 따른 경제적 손실 시산(2020년)>

	수출액(조 엔)			
	미국	EU	중국	3지역 합계
수출총액	12.2	8.6	17.8	38.6
수출감소액(시산)	-1.5	-2.0	-5.1	-8.6
경제파급효과 (산업연관분석)	-3.7	-5.0	-11.9	-20.6
GDP 환산	-1.9	-2.6	-6.1	-10.6
고용(만 명)	-13.7	-18.4	-49.1	-81.2

자료: 일본 내각관방, 'EPA에 관한 각종 시산', 2010.10

- 일본이 TPP 협상에 전격 참가한 데는 미국으로부터 셰일가스의 수출 승인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평가도 있음
 -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심각한 에너지 부족으로 천연가스의 비중을 계속 늘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셰일가스 수입이 절대적으로 필요
 - 미국은 천연가스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FTA 체결국가에 한한다는 입장이며, 현재까지 한국, 영국, 스페인, 인도에 수출하는 계약만이 허가됨
 - 수입이 본격화되면 기존 천연가스(LNG)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고려
 - 일본 정책투자은행에 따르면, 미국산 셰일가스의 對日 수출이 해금될 경우 LNG의 조달 비용을 2020년에 최대 15%까지 줄일 수 있음
- ※ 일본이 지난해 지불한 LNG 가격은 단위 열량당(mmBTU) US\$16.70으로 미국산 LNG에 비해 약 7배 높은 수준(WSJ.com 3월 20일자)

3. 일본의 TPP 참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

- 일본 정부는 TPP 협상 참가 방침을 발표하면서 TPP 참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한 試算결과를 발표
 - 일본은 완전 관세철폐를 전제로 TPP에 참가할 경우 수입이 증가하고 농업 부문에서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지만, 수출 증가 등으로 인해 실질 GDP는 0.66%(3.2조엔)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저가 농산품의 유입으로 농산물 생산이 3조엔 가량 감소하고, 농산물 수입 증가에 따른 GDP 감소효과는 2.9조엔으로 시산
- 그러나 TPP 참가로 인해 소비가 3조엔, 투자가 0.5조엔, 수출이 2.6조엔 증가해 총 6.1조엔의 GDP 증대효과(1.25%)가 있음
 - ※ 그 동안 TPP 영향에 대해서 내각부, 경제산업성, 농림수산성이 개별적으로 시산했으나, 3개 부처의 전제조건이나 계산방법이 제각각 이어서 일본정부가 통일된 시산작업을 추진
- 아베 총리는 시산결과가 관세를 모두 즉시 철폐하는 한편 추가적인 국내 대책을 전제로 하지 않고 계산되어 나온 점을 강조
 - 그는 향후 민감 품목에 대한 일부 예외 가능성과 특별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힘
-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일본이 TPP 참가로 인해 2025년에 GDP가 2%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TPP 참가로 2025년에 일본의 GDP는 1,046억 달러('07년 명목 GDP 대비 2%) 증가하고, 수출은 11.2% 늘어날 것으로 전망
 - ※ Petri, Plummer and Zhai, Japan's Third Arrow: Why Joining the TPP is a Game Changer, PIIE, 2013.3
 - 증가효과의 일부는 TPP의 중심인 비관세장벽의 철폐와 투자자유화에 의해 발생하며, 외국인투자 및 수출 증가, 서비스부문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전망
 - TPP 참가 협상 중인 11개국에 한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TPP가 실현될 경우, 일본은 TPP 참가로 2.2%의 GDP 증가효과가 나타남

4. 일본의 TPP 협상참가 전략과 향후 일정

- 일본정부는 TPP 협상참가를 위한 對美 협상에서 농산품에 대해 '성역' 인정이 예상됨에 따라, 관세유지 농산품 선정에 착수
- 관세 철폐 예외 품목에 쌀, 설탕, 밀, 유제품, 소고기 등 농산품을 중심으로 한 품목을 선정
 - 일본이 예외적으로 관세를 유지할 품목은 농산품 5개 분야 487개로, 전체 품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해당
 - ※ 일본 정부는 특히 쌀과 설탕을 가장 중요한 관세 유지 품목으로 설정했는데, 쌀은 농산품 교역대상 중 생산량과 생산농가 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고, 설탕은 오키나와 전체 가구의 70%가 사탕수수 재배에 종사하고 있어 관세 철폐로 인한 큰 피해를 예상했기 때문
 - TPP는 관세철폐율 100%를 지향하고 있으나 각국의 민감 품목에 대해 성역을 인정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관세철폐율이 98%(한-미 FTA,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정도가 될 전망

- 일본은 미국 등 TPP 협상참가 11개국과 개별적으로 양국간 관세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상한다는 방침으로 추진
 - 국가별 보호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先 개별협상 後 전체협상’이라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
 - 특히 미국과 정상회담 이후 빈번하게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농산품의 관세를 유지하고 미 자동차업계의 일본 TPP 협상참가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미국에 상당부분 양보하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예상
- 일본의 TPP 협상 참가를 11개 협상 참가국이 승인하였지만, 미국과의 협의 절차가 남아 있어 일본이 본격 협상 참여에는 3개월 이후가 될 전망
 - 미국의 경우 행정부가 동의하더라도 국내 절차상 미 의회의 동의 절차가 남아 있으며 최소 3개월이 소요됨
 - ※ 미국은 '07년 失效한 ‘무역촉진권한(TPA: Trade Promotion Authority)’ 상의 수속을 답습하여 늦어도 협상 개시 90일 전까지 의회에 통보해야 함
 - 일본의 본격적인 TPP 협상참가는 빠르면 7월쯤 이뤄질 것으로 보임
 - TPP 협상참가국들은 7월 회의와 9월 장관급회의를 개최할 예정임

<최근 TPP관련 주요 일정>

일시	추진 내용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발족
2013년 2월 23일	미일 정상, 상호 민감품목 인정 합의
3월 15일	아베 총리, TPP 협상 참가 선언
3월 하순	미 의회, 일본 참여 승인 절차 개시(90일간)
4월 20일	11개 TPP 협상참가국, TPP 협상 참가국 장관급 회의에서 일본의 협상 참가를 승인
10월 7일~8일	APEC 정상회의에서 기본안 합의
연내	TPP 협상 타결(목표)

자료: 언론보도 종합

5. 시사점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아태 지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多者間 FTA임에 주목
 - TPP가 미국은 차치하더라도 동남아, 오세아니아, 북·남미를 포괄하는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FTA임을 감안하면, 향후 아태 지역 경제권에 미칠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TPP 협상참가 11개국의 GDP 비중은 전체 APEC 국가의 55.2%를 차지하며, 일본을 포함하면 70.8%로 확대(2010년 기준)

-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TPP가 글로벌 통상 패러다임의 **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TPP를 아시아 진출 전략(Pivot to Asia)의 일환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고, 한국을 비롯해 아시아 각국이 TPP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고 있음
 - 미국은 TPP를 단순히 무역과 관세 철폐의 개념을 넘어 수준 높은 통상 질서를 환태평양지역에 구축하려는 '21세기형 무역협정'으로 추진
 - ※ 미국은 TPP를 아태 경제통합의 중간 단계로 보고 최종적으로는 APEC 21개국을 모두 포함하는 아태 자유무역지대(FTAAP)의 실현을 희망
 - 중국이 관세 자유화의 예외 인정 등으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는 것도 미국 TPP 추진 전략의 주요 목적임
- 일본의 TPP 협상 참가는 한중일 FTA 협상 속도에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되며, 일본 대외통상전략의 전환점이 될 전망
 - 일본 입장에서는 TPP 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한중일 FTA는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있음
 - ※ 한편 중국은 아시아의 경제통합 주도권을 놓고 미국과 경쟁하고 있어 한중일 FTA 협상 진행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임
 - 일본은 그 동안 FTA에는 한국보다 소극적으로 대응했으나, TPP가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지향하고 새로운 교역체계의 룰(Rule)을 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중시해 거대시장인 EU와의 FTA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TPP 협상참가의 최대 이슈인 농업시장 개방 문제가 해결된다면 일본이 FTA를 활성화하는 데에 큰 걸림돌이 제거되므로 향후 적극적인 대외 통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됨
 -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TPP에 참여하고 있어, 한국의 경쟁국인 일본이 동남아 진출 활성화 전략으로 TPP를 중시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
- 일본의 TPP 협상 참가로, 우리나라는 국익의 극대화 차원에서 TPP 참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미국과 일본이 하나의 경제블록으로 묶일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칠 파급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됨
 - 엔화 약세로 수출경쟁력이 커지고 있는 일본이 TPP 가입으로 무관세로 미국시장에 진출할 경우,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을 입힐 뿐만 아니라 한미 FTA의 선점효과가 반감될 우려도 있음
 - ※ PIIE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일본이 TPP에 참여하고 한국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GDP가 0.1%, 수출은 1%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우리나라는 TPP 협상참여를 선언한 12개국 중 미국, 페루, 칠레, 베트남 등 4개국과 FTA를 이미 체결했고, 캐나다, 뉴질랜드 등과는 FTA 협상이 진행 중에 있어, TPP에 참여해도 實益이 크지 않다는 계산하에 정부는 그 동안 TPP 참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왔음

- 한국 정부로서는 ▶TPP가 다수의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고 ▶한미 FTA로 얻은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기를 원하는데다 ▶중국 의존형 경제구조 전환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어 TPP 참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중국이 TPP를 자국 견제를 위한 경제블록 구축으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TPP 참여가 중국을 자극할 가능성도 있음에 유의
- 무한경쟁의 경제영토 변화를 가져올 TPP의 협상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TPP 협상참가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함
- 미국, 멕시코, 베트남, 말레이시아, 칠레, 페루 등 다수 TPP 협상참가국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투자정책, 정부조달, 기술장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참고 자료]

[언론자료]

Bloomberg, 'TPP entry could pave way for U.S. LNG deal' 2013.3.19.

Wall Street Journal, 'Japan's New TPP Energy' 2013.3.20.

[학술자료]

KIEP 북경사무소, 『TPP 발전 동향과 중국의 입장』, KIEP 북경사무소 브리핑, 2012.5.3.

강선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동아시아 지역협력』, 주요국제문제분석 No. 2011-42, 외교안보연구원, 2011.12.28.

권승혁,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논의 상황과 향후 전망』, 국제경제정보 제2011-28호, 한국은행, 2011.6.20.

권혁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전망과 대응방향』, SERI 경제 포커스 제 359호, 삼성경제연구소, 2011.11.29.

기획재정부, 『21세기 세계경제영토 확대 전략』, 보도참고자료, 2011.11.16.

김규판, 『일본의 TPP 협상 참여 선언: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3.4.11.

김형주, 『일본의 TPP 참가 선언, 동아시아 FTA 환경의 새 변수』, LG Business Insight, 2011.11.23.

일본지식정보센터, 『일본의 TPP 교섭참가 선언과 영향』,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2013.

日本 國立國會圖書館, 『環太平洋經濟連携協定(TPP)の概要』, 2013.2.

日本 內閣官房, 『EPAに 関する 各種試算』, 2010.10.

第一生命經濟研究所, 『TPP参加に實質合意した日米首腦會談』, 2013.2.26.

Brock Williams,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Countries: Comparative Trade and Economic Analysis", *CRS Report R42344*, January 29, 2013.

Hamada, Posen, Danninger, Itoh, Schott, and Yeutter, The Economics of Abenomics – A Pre-Summit Assessment, *Conferenc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February 15, 2013.

Matthew Goodman and Michael Green, "Why Japan Should Join the TPP",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CSIS), March 11, 2013.

Mireya Solis, "Japan's Big Bet on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he TPP Nations Should Reciprocate", Brookings Institution, March 25, 2013.

Peter Petri and Michael Plummer,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and Asia-Pacific Integration: Policy Implications", *Policy Brief*,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June 2012.

Petri, Plummer and Zhai, "Japan's Third Arrow: Why Joining the TPP is a Game Changer", *Real Time Economic Issues Watch*,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IIE), March 15, 2013.